

##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보상의 축복

성경말씀: 히11:4-6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 80년,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만 58세, 다른 것은 몰라도 열정적으로 살았다. 전9:10, 세상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산다. 그런데 목표가 다르다. 우리는 영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계4:11).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세상과 나를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의 뜻 실현,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그런데 이런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고생, 희생, 고난 No! '복, 잘된다. 기쁘다', Yes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동족들의 따돌림

삶이 윤택해질 줄 알았는데 심지어 재산의 약탈, 핍박(히10:32-33)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거기에 따른 희생이 오게 마련이다(벧전4:12-13).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11:6).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6). 나와 함께 여기에 동참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보상의 축복>

### 가인과 아벨(히11:4)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창4:1-8)

창4:1 이브는 첫 아이를 낳고 주님이 주시는 구속자, 여자의 씨로 생각함(1절; 창3:15)

가인: '쇠 창'(iron spear),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삼상16:6-7).

창4:2 아벨: '숨' breath(공허한 것, vapor, vanity; 약4:14), 들의 직업

창4:3-5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 하나, 종교와 구원의 성경적 정의

시간이 흐른 뒤에(어떤 주기가 끝난 뒤에), 가인은 철저한 종교인이었다(장소와 시간과 예물을 얹;

문제는 자기 방식대로 함, 가인의 길(유11). 롬10:1-10, 사17:5, 12-13

이들은 아담의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없다(엡6:4): 가죽옷 사건, 피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히9:22, 유월절 사건의 피(출12:13), 벧전1:18-19

아벨은 바른 것을 드림(4), 하나님이 즉각 받음(창4:7), 절대적 확신이 생김(롬8:38-39)

히11:4: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

교훈: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

요4:22-24,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교통 속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사람 눈에 보기에 가인의 것이 멋있게 보였다. 세련되었다. 그는 훌륭한 종교인, 그런데 믿음이 없다.

아벨의 것: 피가 흐른다. 고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로 아벨의 것을 수용하시고 가인의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벨의 믿음, 피에 대한 믿음, 대신 속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지금도 증언하신다(4절).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섬기지 않은 자가 믿음으로 섬기는 자를 죽인다(창4:8).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바르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세상의 눈에는 촌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하면 우리의 속증심을 보신다.

우리는 왜 여기 모였는가? 1.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어서, 2. 예수님이 세워 주신 교회를 신약 시대

교회 정신으로 구현하고 싶어서, 3. 세상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 싶어서, 4.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5. 아이들에게 좋은 성경과 좋은 교육을 하는 교회를 남기고 싶어서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예녹(히11:5)

창5:21-27 예녹(히11:5), '새롭게 시작한다'. 삶이 거의 소개되지 않음

5장 설명, 아담의 자손들의 죽음(5, 8, 11, 14, 17, 20...)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처럼 새 일을 시작하심, 에녹의 휴거(24절)

창4:24: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믿음으로 걷는다(고후5:7). 그 결과 승천하였다.

에녹(유14), 동행(암3:3): 가정 생활하면서

365년(23), 죽는 사람들 속에서 휴거되는 모습의 예표(살전4:16-17; 고전15:50-52)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히11:5), 대단히 귀중한 표현

인간의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고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았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다윗, 심지어 예수님, 바울

###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핵심(6)

1.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에게서 보는 것이 나옴

그냥 생각할 수 없다. 진화론 불가능

2.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보상해 주신다.

믿음이 없는 대다수 사람들: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세상이 너무 좋다. 스마트폰, 차

인간의 존재 목적: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대답: 모른다. 그냥 살다가 죽는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 인간은 불멸의 존재, 창조자가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대충 찾는 사람, 부지런히 찾는 사람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대충 찾기가 사실 불가능하다.

전력으로 찾게 된다. 희생하며 찾게 된다. 섬기며 찾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대충'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 의, 공의, 공평, 공정하게 재판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과 심판을 하신다.

구원받기 전의 우리 행위: 내 것, 누더기

구원받은 이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며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그 결과 보상이 나온다.

바울의 표현: 고전9:24-25, 고후4:16-18

예수님의 표현: 마6:19-21; 계22:12

목요일 오전 문자, 건축헌금 2,000만원, 전화 자매님 사연 소개.

최상기 형제님이 직접 통화, 자매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

이것이 믿음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닌가? 희생이 오히려 그 가정을 기쁘게 하였다.

예수님 죽기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마26:6-13). 모두 불평

예수님의 말씀 "나를 위해 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의 일이 언급되어 기념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때 하는 것이 믿음이다. 1.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2. 사역자를 기쁘게 한다. 3. 주변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격려한다. 4.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 결론

믿음이 있으면 바르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예배당이나 의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교회를 하려고 모였는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모임, 기도와 말씀과 섬김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 에녹의 휴거, 휴거를 기다리는가? 부활을 기다리는가?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목사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딤후4:7-8).